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청룡장 수훈

9월 25일 '평창올림픽 공로'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 IOC위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공로로 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을 수훈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9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서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공자 전수식'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체육훈장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받았다.

이 행사에는 이기흥 회장과 더불어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송승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예술총감독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회장과 이명호 회장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각각 받았다.

이기흥 회장은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지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인류화합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스포츠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호국영령 위로한 지장선원종

제2회 화산전투 호국영령위령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총본산 지장선원(주지 혜봉)은 9월 20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영도벨벳 연수원에서 제2회 6.25 화산전투 호국영령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과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스님, 김제현 호국영령위령제 봉행위원장, 장광수 화북2리 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선원장 혜봉 스님은 "6.25 화산전투는 1959년 9월 6일부터 15일 사이 군위군 고로면 화산 일대에 국군 6사단과 북한군 제8사단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운 절체절명의 전투였다"며 "이 전투에서 국군6사단 소속 1만7014명의 꽃다운 젊음, 입대를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름 모를 계곡과 수풀에서 외로이 쓰러졌다"고 호국영령을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두 번째로 위령제를 봉행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해 이고득락을 돕겠다"며 "국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길러 나라 사랑과 민족화합을 도모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봉행인사를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심신수행 요가와 禪 수행을 동시에"

Interview

파주 유가선원 개원한 현천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헹가요가와 선수행 접합

서울 · 대구 이어 파주 개원

동안거부터 수좌 스님 방부

"좌선 위주의 수행에서 심신이 함께 수행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요가와 참선을 함께 해 자연스럽게 일상 행주좌와에서 의식이 깨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새롭게 문을 연 도량에서 현대시대에 맞는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 수행의 원형으로도 평가받는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된 수행이다. 고요한 상태에서의 집중을 이끄는 요가와 한국불교 선수행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수행 도량이 문을 열었다.

한국아헹가요가협회장 현천 스님은 최근 파주 법원읍에 '대한불교조계종 유가선원' 을 개원했다. 1600㎡ 규모의 유가선원은 선과 요가 실수를 위한 법당을 비롯해 다실, 공양간, 지대방 등을 갖췄다.

현천 스님이 전하고 있는 아헹가 요가는 인도 요가수행법 중 아헹가 선생이 고대 요가를 현대 의학 및 과학과 접목해 현대화한 것이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대학원,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 후 선방에서 수행해온 현천 스님은 인도 아헹가요가연구소에서 요가를 배웠다. 이후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비롯해 봉암사,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직접 요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아헹가요가협회장으로서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에 아헹가요가센터를 열어 전통 아헹가 요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은 최근에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프로그램으로 '수행과 요가' 강연을 했다.

현재 유가선원에서는 아헹가 요가 기본자세 및 호흡법에 관한 9개월 과정의 지도자교육과정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매주 주중 오전 9시와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스승과 제자가 함께 수련하는 전통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스님은 "요가의 경우 재가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님들도 화두참구에 도움이 되는 요가수행을 통해 수행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올해 동안거부터는 선원 방부도 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천 스님은 또 "참선 수행 과정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 유지로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행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잘되는 것"이라며 "바르게 앉고,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화두가 성성한 경지가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질환 예방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선원에서는 재가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과 군장병 특화 단기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천 스님은 끝으로 "파주 유가선원은 수행에 맞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유가선원이 요가 보급과 함께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문인 자긍심, 전법교화로 승화"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의

장학금 전달 · 향후 계획 논의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진광)은 9월 23일 경내 선열당에서 운문사승가대학 제48차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동문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율주 일진 스님, 학장 진광 스님,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한 동문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 안건토의에 앞서 전임 동문회장 동진 스님과 신임 동문회장 일지 스님의 이·취임식이 열렸으며, 모교 발전을 위한 의견토론과 출판비 보조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학사과정 혜공 스님과 석·박사과정 현응 스님 등 학업을 이어가는 비구니스님 15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자고로 좋고 훌륭하고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위대한 스승이 되지 못해 한편으론 부끄럽다"며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이 일선 포교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이는 저의 기쁨이고 희망이며 자랑이다. 항상 운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스님들이 회의에 앞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임회장 일지 스님은 "운문사의 역사를 함께해온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신 대중 스님과 구순을 맞이하신 회주 스님을 도와 수행과 교학, 저술활동에 앞장서 소임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걷기명상' 을 실시하며 대중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자비나눔 기금을 기탁하는 등 자비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종단 개산 의미, 대대로 계승"

관음종 태허조사 탄신 115주년 추모다례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23일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홍선 조사의 탄신 115주년을 맞아 순천 선암사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원로의장 법륜 스님, 종회의장 법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윤호섭 기자**

은해사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돈관 스님 "오늘만큼은 모두 천진불 되길"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21일 경내에서 제1회 은해사 전국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을 개최됐다. 이날 주어진 주제는 자유상상화, 은해사 경내 풍경과 수채화, 은해사 및 부처님이었다. 주지 돈관 스님은 "경내 법당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니 오늘만큼은 산사의 상황표현과 사고 전환의 내용으로 천진불이 되어 달라"고 인사말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다가올 겨울, 온기 나눠요"

진안 쌍봉사, 이웃에 연탄 · 난방유 전달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9월 23일 다가올 추위에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는 이웃 13가구에 자비의 연탄 2,400장과 난방유 1,000리터를 전달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겨울이 유난히 긴 지역인데 이웃들이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섬김봉사단과 함께 연탄나눔활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健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80ml × 60팩
13만원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